

## 현대건설이 선보이는 ‘스마트 건설기술’의 현주소... ‘디지털 트윈’ 시대의 단면을 엿보다

2022 터널/스마트건설 기술시연회 개최... 국내 최초 터널 건설현장에 본격 적용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 드론 등 최첨단 기술이 세상의 흐름을 바꾼다. 건설사들도 앞다퉈 새로운 기술로 무장하고 변화에 발맞추고 있다. 현대건설 역시 예외는 아니다. 현대건설은 국내 최초로 터널 건설현장에 스마트기술을 적용하며 ‘디지털 트윈’ 시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4월 7일 열린 ‘2022 터널/스마트건설 기술시연회’는 스마트 건설기술의 현주소를 엿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날 현대건설은 국내 최초로 터널 건설현장에 적용한 데이터 기반의 최첨단 TBM 터널 공법 등 23가지 스마트 건설기술을 공개했다. 모든 기술의 핵심은 ‘현장의 생산성·품질·안전성 향상’에 초점을 맞춘 것. 그중에서도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발생 가능한 문제를 예측·해결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개념을 현장에 녹여낸 것이 눈에 띈다. 컴퓨터 앞에 앉아 현장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꿰뚫어 볼 수 있는 ‘천리안’ 같은 기술을 도입한 것. TBM 장비에 각종 센서와 디지털 기기를 탑재해 양질의 운영 정보를 실시간 취득하고, 자체 개발 기술인 TBM통합운전관리시스템(TADAS)을 통해 최적의 운전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또한 본사와 현장의 의사소통 방식도 한결 매끄러워졌다. BIM 기반의 정보를 한데 모은 ‘디지털 시스템(HIBoard: Hyundai IoT Dash-Board)’과 본사-현장의 통합 운영 시스템인 ‘중앙 통합운영 시스템(HOC: Head Office Control)’을 이용하면 원격으로 현장의 현황·정보를 검토하고, 상황에 맞춰 공정을 진행할 수 있다. 현대건설이 선보이는 앞선 스마트 터널 기술은 ‘스마트 터널’ 혁신 현장인 ‘고속국도 제400호선 김포~파주 간 건설공사 제2공구’에서 미리 만나볼 수 있다. ▶▶관련기사 4, 5면

현대건설은 변화와 혁신으로 무장한 ‘현대정신’으로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사보신문>에서는 구체적 실천과 강인한 추진력으로 ‘글로벌 건설 리더’를 향해 나아가는 현대건설의 도전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 TOPIC

현대건설 터널/스마트건설  
기술시연회 취재기

### FOCUS

국내 최초 글로벌 테마파크  
레고 세상으로, Let's go!

### COLUMN

프리츠커상 수상자  
건축가 프란시스 케레

State-of-the art technologies including AI, IoT, robots and drones have been changing the world. Armed with novel technologies, construction companies are keeping abreast of such trend. Hyundai E&C is no exception. Korea's primary builder is accelerating its effort to usher in the "digital twin" era, adopting smart technologies to conduct its tunnel project, the first of its kind in the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The 2022 Hyundai E&C Tunnel and Smart Construction Technology Demonstration, held on April 7, showcased 23 smart construction technologies such as data-based cutting-edge TBM technology. The smart construction technologies exhibited put a focus on the improvement of the productivity, quality and safety of project sites. What was most notable was Hyundai E&C's attempt to operate its construction sites based on the digital twin concept enabling users to remotely share construction site situations in real time and forecast possible incidents through simulations.

# Our company to build a UAM landing area in Seoul

Signing a MOU to construct a take-off and landing vertiport

Our company has set out to forge a strategic cooperation with the aim to successfully carry out a K-UAM (Korea's urban air mobility) project. Our company signe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with IGIS Asset Management to successfully build a vertiport, a take-off and landing area for UAM, and invigorate related businesses in Hyundai E&C's head office on April 15. The signing ceremony was attended by Hyundai E&C CEO Yoon Young-joon and key officials from Advanced Air Mobility Division of Hyundai

Motor Company and IGIS Asset Management. The three companies will establish a close cooperative relationship after consultations on cooperation towards selection of a UAM vertiport site, concerted efforts to commercialize the UAM vertiport project and development of a UAM vertiport business model. Our company is seeking to build and operate the vertiport as part of the Millennium Hilton Hotel project jointly developed with the investment management firm in Jung-gu,

downtown Seoul. The Millennium Hilton Hotel project is conducted in an area located near KTX Seoul Station, Airport Railroad Express and GTX. The project is designed to buy the existing property in the area and construct and operate a multi-purpose building. Our company and As IGIS set Management will develop one of new transportation hubs in line with the commercialization of UAM. Our company is the only builder among nine private companies which participate in the UAM Team Korea.



# 서울 도심에 UAM 수직이착륙장 건설 ... 미래형 교통허브 개발 나선다

4월 15일, 현대건설-현대차-이지스자산운용 'UAM 버티포트 업무협약(MOU)' 체결

우리 회사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전략적인 상호협력에 나선다. 우리 회사는 4월 15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본사에서 현대자동차, 이지스자산운용과 함께 'UAM(도심항공교통) 버티포트의 성공적 실현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서명식에는 우리 회사 운영진 사장을 비롯해 현대자동차

AAM(Advanced Air Mobility: 미래항공모빌리티)본부 송재용 상무, 이지스자산운용 이규성 대표이사 등 3개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3개사는 ▶UAM 버티포트 사업지 선정을 위한 공동 협력 ▶UAM 버티포트 사업화를 위한 공동 노력 수행 ▶UAM 버티포트 사업모델 개발을 위한 협력 등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우리 회사는 이지스자산운용과 공동개발 중인 '밀레니엄 힐튼호텔 부지 개발 사업'에 버티포트 설치 및 운영을 추진한다. KTX 서울역-공왕철도-GTX 등과 인접한 지역에 위치한 '밀레니엄 힐튼호텔 부지 개발 사업'은 기존 자산을 매입해 복합건물을 개발하고, 시공·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우리 회사와 이지스자산운용은 UAM의 상용화에 맞춰 이곳을 신(新)교통

거점지 중 하나로 개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운영진 사장은 "UAM 상용화 이전 단계에서 사업화 방안, 콘셉트 수립 등 버티포트 관련 개발역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국내 도심항공교통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스마트시티와 연계한 UAM 특화도시 적용 등 다양한 모델 개발에도 지속적으로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자동차와 현대건설은 ▶2020년 'K-UAM의 성공적 실현 및 시험비행실증을 위한 업무협약' ▶2021년 '도심항공교통의 성공적 실현 및 생태계 구축협력' MOU 체결 등을 통해 유수의 선도사들과 함께 UAM 생태계 발전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특히 우리 회사는 UAM Team Korea의 민간기업 9개사 중 유일한 건설사로 참여 중이다.

# Korean nuclear plant technologies seeking to go global

Our company concludes a MOU with KEPCO Nuclear Fuel

Our company entered into a comprehensiv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with KEPCO Nuclear Fuel in order to promote businesses with regards to spent nuclear fuel and nuclear power plant decommissioning at home and abroad. The signing ceremony was held in the headquarters of KEPCO Nuclear Fuel located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on April 20, with attendance of

key officials from both companies such as Hyundai E&C CEO Yoon Young-joon and KEPCO Nuclear Fuel President Choi Ik-soo. The two companies agreed to cooperate in areas such as nuclear power plant decommissioning in the domestic and global nuclear markets, temporary and interim storage facilities for spent nuclear fuel, nuclear fuel soundness assessment and ra-

dioactive waste treatment. They will join forces for technology and information exchanges and joint business development. Such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mpanies with extensive capability and expertise is expected to create a synergy effect in new nuclear power markets related to nuclear plant decommissioning, spent nuclear fuel and SMRs (small modular reactors).



# 현대건설, 한전원자력연료와 포괄적 MOU 체결 ... K원전기술 글로벌 진출 가속화

4월 20일, 국내외 '원전해체 및 사용후핵연료 사업 동반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우리 회사와 한전원자력연료가 4월 20일 국내외 '원전해체 및 사용후핵연료 사업 동반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한전원자력연료 본사에서 열린 이날 체결식은 우리 회사 운영진 사장과 한전원자력연료 최익수 사장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사는 MOU를 통해 ▶국내의 원전해체 사업 ▶사용후핵연료 임시 및 중간저장시설 ▶원자력연료 건전성 평가 ▶방사성폐기물 처리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향후 해당 분야의 기술 및 정보 교류, 사업 동반 진출 등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국내 원자력발전소 시공 최대 실적 을 보유한 현대건설과 국내 유일의 원

자력연료 설계·제조·서비스 전문회사인 한전원자력연료와의 협력으로 ▶원전해체 ▶사용후핵연료 ▶소형 모듈원전(SMR) 등 원자력 산업 신 시장에서 큰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MOU를 통해 원자력발전소 시공뿐 아니라 원자력 사업 전반에 걸쳐 사업 다각화를 수행

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며 "향후 현대건설의 기술력으로 세계 최고 수준을 갖춘 K원전기술 보유국가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회사는 지난해 11월 미국 홀텍사의 소형모듈원전(SMR) 원자력발전소 시공뿐 아니라 원자력 사업 전반에 걸쳐 사업 다각화를 수행

전해체 시장에 진출한 바 있다. 또한 1978년 고리1호기를 시작으로 월성 1·2호기, 한빛1~6호기, 신고리1~4호기, UAE 바라카 원전 등 국내 건설사 중 가장 많은 원전 건설 수행 실적을 보유한 것이다. 독자적인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지난 50여 년간 원전 사고 '제로'라는 기념비적인 기록도 달성했다.

# 2022년 신입사원 'CEO 간담회' ... MZ세대와 세대공감 토크

윤영준 사장 "우리의 발자취에 자부심 가져도 좋아... 건설사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 달라"

"올바른 가치관 없이 인생을 사는 것은 내비게이션 없이 미지의 장소에 가는 것과 같습니다. 명확한 가치관으로 무장한 사람은 선택의 순간 자신에게 온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세네기로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여러분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조언은 좋은 선배·동료와 대화하고, '고전'에서 인생의 지혜를 배우라는 겁니다. 좋은 고전에는 위기 대처법, 발상의 전환 등 모든 전략이 집약돼 있습니다."



윤영준 사장이 4월 25일 계동 본사 지하 2층 대강당에서 2022년 신입사원 102명이 참여한 가운데 'CEO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상하 간의 벽을 허물고 소속감과 유대감을 다질 수 있는 ▶세대공감-함께하는 우리(설문조사) ▶CEO 메시지 ▶즉석 Q&A 등의 시간으로 꾸며졌다. 윤영준 사장은 "육군 장교로 있을 때 우연히 정주영 선대회장님의 강연

을 들은 적이 있다"고 운을 뗐 후 "당시 선대회장님께서 '현대건설은 부국강병(富國強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게 인상적이었다. 나라가 절체절명 위기에 빠질 때마다 누구보다 먼저 발벗고 나선 기업이 바로 현대건설이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회의사당·청와대·대법원청사 등 국가의 뿌리를 짓는 데 일조한 우리의 발자취에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러분이 어떤 회사와 견줘도 자랑스러워할 기업 문화와 업계 최고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CEO로서 노력하겠다"며 세네기 직원들의 시작을 응원했다. 신입사원들은 CEO에게 궁금한 점을 즉석에서 물어보는 자리에서 'CEO로서 무개감' '인생 최고의 선택' '대규모 인력 채용의 이유' '신입사원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등 평소 궁금했던 것들을 쏟아냈다.

이에 CEO가 아닌 '인생선배'로서 성심껏 답한 윤 사장은 "'바다는 물을 가리지 않는다'는 말을 가슴속에 새기고, 당장의 이익을 쫓기보다는 큰 좌표와 포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갈 사업적인 비전과 목표는 명확하다. 평소에도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된다면 어떤 위기도 두려울 것이 없다. 건설사라는 프레

임에서 벗어나 보다 새롭고 다양한 분야에 도전해 달라"고 다시금 강조했다. 한편 올해 신입사원들은 지난 1월 3일 인턴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토목·건축·플랜트 등 6개 현장에서 12주간의 인턴 실습 후 최종평가를 거쳐 선발됐다. 현장 적응력과 실무 능력을 갖춘 세네기들은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그룹-건설 입문교육을 완료하고, 현업에 배치됐다.

# Civil engineering projects win awards

Our civil engineering projects at home and abroad have been awarded prestigious prizes in succession in recognition of our technological prowess and excellent construction capability. The Boryeong Undersea Tunnel project was awarded the grand prize at the Civil Structure of the Year hosted by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on March 30. The Boryeong Undersea Tunnel is the world's fifth and Korea's longest tunnel under the sea. Since the commencement of the project in December 2012, about 800,000 workers were deployed for around 4,000 days to build the 6.9-kilometer undersea tunnel. The Seobu Underpass (Section 1) project



received the grand prize in the large-scale tunnel category at the 2022 KTA Tunnelling Awards on April 14. In addition, the Qatar's Al Bustan Street expansion and construction project won the grand prize in the infrastructure category at the 2022 Overseas Construction Awards.

# 토목 현장 수상 이어져... 우수한 '시공·기술력 입증'

우리 회사의 국내외 토목 현장이 유수의 시상식에서 연달아 수상하며 대외적으로 뛰어난 시공·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우리 회사가 시공한 '보령해저터널' 현장이 최근 대한토목학회가 주관한 '올해의 토목구조물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2003년부터 진행된 '올해의 토목구조물 공모전'은 새로운 설계기법과 시공기술의 개발을 촉진시키고 국내 토목 구조물의 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목 기술 발전과 홍보에 크게 기여한 토목 구조물을 선정한다. 우리 회사는 지난해 '화양초달대교'가 금상을 받은 데 이어 올해 '보령해저터널'로 대상을 수상하며, 명실공히 국내 토목 분야 최고의 기술력과 시공 능력을 갖춘 건설사로 인정받았다. 보령해저터널은 국내 최장이자, 세계에서 5번째로 긴 해저도로터널이다. 총남 보령시 대천항과 오천

면 원산도를 연결하는 6.9㎞ 길이로, 2012년 12월 첫 삽을 뜬 후 4000여 일간 연인원 약 80만 명이 투입됐다. 이 밖에 4월 14일에는 '서부간선 지하도로 건설공사(1공구)' 현장이 한국터널지하공학회가 주관하는 '2022 KTA Tunnelling Awards'에서 대형 터널 프로젝트 부문 대상을, 3월 29일에는 '카타르 Al Bustan St. 도로 확장 및 신설 공사' 현장이 메니투데이가 주관한 '2022 해외건설대상'에서 사회기반시설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우수한 프로젝트 수행력을 입증받았다. 회사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시공한 토목 현장이 연달아 뛰어난 시공·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국가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대형 프로젝트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현대건설, 업계 최초 중간소음 고객 청감평가 실시

우리 회사가 중간소음차단 1등급 기술개발에 이어 고객 초청 청감평가를 실시하며 중간소음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우리 회사는 4월 19일과 20일 양일간,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구리역' 모델하우스에서 고객 평가단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간소음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주거 공간에서 느끼는 청감과 유사한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모델하우스 세대 내부에서 진행 된 이번 조사는 중간소음 측정에 사용되는 인팩트볼 외에도 성인 보행, 아동 달리기 등 실제 소음이 재현됐다. 특히 정교하게 맞춰진 대응방 향파 시스템과 앰버소닉스(ambionics) 기술로 소리와 진동을 동시에 전달해 실현의 정확도를 높였다. 전문가 테스트가 아닌 일반 고객에게까지 청감평가를 확대해 만족도를 조사한 것은 우리 회사가 업계 최초다.



조사에 참가한 고객들은 "실생활 소음으로 테스트를 하고 결과를 보니 현대건설이 개발한 중간소음 저감 기술이 확실히 달랐다. 이렇게 소음이 안들리면 집이 더욱 편안하고 쾌적해 질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한편, 우리 회사는 2015년부터 국내 최초로 중간소음 전담인력으로 구성된 연구실을 운영하는 등 중간소음 저감에 선도적 역할을 해오고 있다.

# 현대건설-아모레퍼시픽, 친환경 ESG경영 업무협약 체결

우리 회사가 아모레퍼시픽과 손잡고 화장품 용기를 재활용한 감각적인 건축 자재를 공동 주택 조경 시설물에 선보인다. 4월 14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본사에서 진행된 '화장품 광병 재활용 건설 자재 업무협약식'에는 우리 회사 이인기 건축주택개발사업장을 비롯해 아모레퍼시픽 오정화 지속가능경영 디비전 상무 등 양사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해 양사는 플라스틱 용기 분쇄물을 초고성능 콘크리트(UHPC)와 혼합한 건설용 테라조 타일을 제조, 공동주

택 현장에 적용한다. 우수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진 업사이클링 테라조 타일은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 연출이 가능해 조경 시설물 등에 적극 활용될 수 있다. 우리 회사는 '힐스테이트 수지구청역'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힐스테이트 포항' 등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친환경 ESG 경영을 강화하는 기회를 마련했다"며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를 석권한 현대건설의 감각적인 디자인에 지속가능한 공간에 대한 고민을 담아 최고의 상품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현대건설 터널/스마트건설 기술시연회 취재기

# 본사-현장의 원격협업, 무인화 기술까지... '건설의 미래'를 확인하다

현대건설의 스마트 건설기술이 더욱 진화했다. 우리 회사는 2020년부터 스마트건설 기술시연회, 건설 로보틱스 시연회 등을 개최하며 건설의 미래상을 제시해 왔다. 4월 7일 진행된 기술시연회는 지난 10여 년간 건설의 미래를 고민해 온 우리 회사의 결실이 오롯이 담겼다. 현실 세계의 건설현장, 중장비를 가상세계에 구현하고, 본사와 현장이 실시간으로 협업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포함한 23개의 디지털 기술과 최첨단 터널 기술까지 두루 만나볼 수 있었다.

글=박현희 / 사진=이슬기

미래 건설기술에 들뜬 기술시연회

계동 본사에서 경기도 파주시 방화리길 방향으로 1시간가량 달리자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원격 드론 한 대가 눈에 띈다. 드론을 따라 도착한 곳은 고속국도 제400호선 김포-파주 간 건설공사 제2공구 현장. 이곳은 우리 회사의 스마트 터널 혁신현장이자 '2022년 현대건설 터널/스마트건설 기술시연회'가 열리는 장소다. 우리 회사는 사업본부별로 공종에 따라 스마트 혁신현장을 운영 중이며, 토목사업본부는 스마트 터널-활반-교량-토공 등으로 나뉜 혁신현장을 관리하고 있다.

일찍 도착한 덕분에 (사보신문) 취재진은 기술시연회를 보다 꼼꼼하게 참관할 수 있었다. 개막에 앞서 눈에 띈 것은 현대자동차그룹 보스턴디나믹스의 4족 보행로봇 '스팟(Spot)'과 무인 지상 차량 'UGV(Unmanned Ground Vehicle)', 라이다(LiDAR), 레이저 스캐너, 360도 카메라 같은 기기를 달아 무인 측량, 현장 안전 패트롤, 원격 현장 모니터링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무인화 로봇이다. 원격조종에 따라 스팟과 UGV가 움직이자 갑탄을 금지 못했다. 특히 '로봇 감자'라고도 불리는 스팟이 스스로 장애물을 인식해 피하거나 멈추는 모습을 보면서 반려동물들이 이어 반려로봇이 일상에 자리 잡는 날이 머지않은 듯했다.

다음으로 걸음을 옮긴 곳은 '스마트글래스' 부스였다. 'AR 홀로렌즈'를 쓰자 눈앞에 매뉴얼과 두 손이 그래픽 형태로 떠올랐다. 디지털 손으로 내비게이션 하

목을 클릭하니 시연회 장소가 순식간에 김포-파주 간 건설공사 2공구 현장의 중점부로 바뀐 것 같았다. 디지털 세상 속에서는 실제 건설현장의 골조와 3D BIM 모델링 화면이 겹쳐 보였다. 금공반 부분을 디지털 손으로 터치하자 자세와 규격, 이력 등의 항목이 상세하게 표시됐다. 스마트글래스를 사용하면 계동 사무실의 직원과 현장에 있는 직원이 원격으로 화상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상. 홀로렌즈를 통해 3D 가상 시공물과 실제 공사 상황을 비교하며 시공할 수 있어 세밀한 품질관리가 가능해진다. 부스 관계자는 "홀로렌즈를 통해 현실과 가상세계가 상호작용하는 혼합현실



(MR-Mixed Reality)을 경험할 수 있다"며 "우리 회사가 건설업의 '디지털 트윈' 시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D로 입체화한 가상현실... 스마트건설 실현

정오가 지나자 인문사 취재진과 우리 회사 토목사업본부 감기범 본부장, 한국도로공사 R&D본부 김유복 본부장, 스마트건설사업단 조성민 단장을 비롯해 스마트건설 관련 주요 정부부처 및 산학연 관계자들이 속속 도착했다. 참가자들은 현장 내 한강터널 홍보관 안쪽에 설치된 부스를 둘러보며 우리 회사가 선보일 스마트건설의 청사진이 기대된다는 표정을 지었다.

드디어 행사 시작, 이날은 터널/스마트건설 기술발표와 관련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술시연회, TBM(Tunnel Boring Machine) 제작장 및 현장 견학 순으로 진행됐다. 개막을 알린 감기범 본부장은 "생산성-품질-안전 등 건설업계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스마트화"라며 "구준히 연구한 기술을 각 분야 전문가와 공유해 건설업계의 발전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기술발표회에서는 조성민 단장이 "글로벌 건설시장은 스마트건설로 급변하고 있다"면서 "데이터의 규격화, 통합화에서 더 나아가 기술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목사업본부 터널사업지원팀 주광수 팀장과 토목경영전략추진팀 이성표 팀장이 우리 회사의 터널 기술과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해 소개했다.

이러진 기술시연회는 자유 관람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의 이목을 가장 먼저 집중시킨 곳은 '터널속으로'라는 이름의 TBM 전시관. 전시관은 3면의 흰 벽이 있는 12㎡의 작고 평범한 방이었다. 천장에 프로젝트가 달려 있었지만, 디지털 기술이라고 느낄 만한 요소는 보이지 않았다. 다른 참가자들 역시 처음에는 어리둥절하며 앉아있었다. 그러나 영상이 재생되자 상황이 반전됐다. 평범한 방은 초대형 TBM의 내부처럼 느

껴졌고, 장비 속에서 터널 굴착을 지켜보는 것 같은 신기한 경험을 주었다. 이처럼 극대화된 공간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장비도면을 3D로 입체화해 가상현실(VR-Virtual Reality)로 만든 덕분이다. TBM 전시 옆에는 VR 기기로 TBM 내부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부스가 마련돼 있었다. 안내 직원은 "특수 장비인 TBM의 시공 단계를 VR 시뮬레이터로 구축한 덕분에 모든 시공 과정을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다"면서 "물입형 안전교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날은 본사와 현장이 원격으로 협업할 수 있는 플랫폼이 대거 소개됐다. 참가자들은 우리 회사가 개발한 BIM 기반의 디지털 현황판 'HiBoard(Hyundai IoT Smart Dash-Board)'를 터치하며 TBM 추적, PC 부재 이력관리, 실적 비교 등 현장 운영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했다. 이 정보들은 본사에서 현장들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HOC(Head Office Control)룸'과 실시간으로 연동된다.

국내 최초 한강 아저 통과 도로 터널... 전 구간 무선 데이터 통신 구축

현장 견학은 안병철 현장소장의 안내에 따라 진행됐다. 한강터널 홍보관 앞에서 버스를 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망망대지(茫茫大地)가 눈앞에 펼쳐졌다. 고속국도 제400호선 김포-파주 간 건설공사 2공구는 왕복 4차로 총연장 6.734km 규모로, 길이 2860m의 터널 공사가 포함된 프로젝트다. 국내 최초로 한강 하저를 통과하는 도로 터널이어서 '한강터널 현장'이라고도 불린다.

공정률은 18.25%로 현재 터널 굴착을 위해 가시설 조성 공정을 진행 중이다. 터널 공사에는 국내 최대이자 해외에서도 시공 사례가 흔치 않은 직경 14m, 연장 125m, 총중량 3200t에 달하는 대(大)구경 TBM이 사용된다. 안 소장은 "최대 대기의 5배에 이르는 고수압 환경과 흙, 모래, 알반 등이 뒤섞인 복합지반의 특수성을 고려해 안전성이 높은 '이수 가압식 실드 TBM 공

법'으로 시공한다"면서 "터널 굴착부터 구조체 시공, 토사 배출까지 전 과정이 기계적 자동화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사가 한창이라는 설명과 달리 현장에는 중장비만이 바빠 움직일 뿐 근로자는 눈에 띄지 않았다. 현장 관계자는 "작업 전 과정이 무인화-기계화된 덕분에"라며 "같은 규모 토목 현장의 피크 시 인원과 비교하면 절반 정도의 수준이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스마트 터널 혁신현장이란 만큼 현장에는 우리 회사의 첨단 디지털 기술을 집증시켰다. 터널 작공에는 우리 회사가 자체 개발한 TBM 통합운영관리시스템 'TADAS(TBM Advanced Driving Assistance System)'를 적용한다. 굴착 데이터와 지반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최적의 운전 방법을 제시하는 기술로 공기 단축-원가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안전한 터널 시공을 위해서는 IoT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통합안전관리시스템이 24시간 가동된다. 터널 전 구간에 원활한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도록 '무선 통신 환경'을 구축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안전 리스크 분석 기술인 'AI 재해예측 시스템', 기술시연회에서 주목받은 무인화 로봇기술과 본사-현장 원격 협업 플랫폼 등도 도입한다.

"2022 현대건설 토목/스마트건설 기술시연회"를 취재하며 건설현장의 기계화-자동화가 목전에 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우리 회사는 사전 제작-현장 조립 방식의 시공 형태인 OSC(Off-site Construction) 시스템을 구축하고, ICT 융-복합 기술을 접목해 건설현장의 완전한 스마트화를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다. 건설현장의 스마트화는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는 데서 더 나아가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행사는 우리 회사의 디지털 건설기술의 현재뿐 아니라, 더 안전한 건설 산업의 미래까지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앞으로 우리 회사가 열어 갈 새로운 건설환경에 청신호가 켜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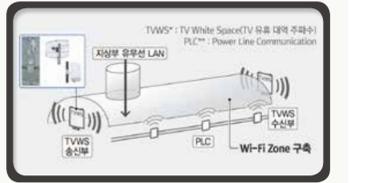
Zoomin 주목할 만한 현대건설의 '디지털 트윈' 기술들!



**HiBoard (HyundaiIoT Smart Dash-Board)**  
건설 현장에 적용된 IoT 센서 등 디지털 기술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플랫폼이다. ▶TBM 추적 ▶프로젝트 내 주요 시설물 현황 파악 ▶안전관리시스템(HLOS) 연계 ▶PC 부재 이력관리 ▶자산 관리 ▶공정계획/실적 비교 ▶CCTV 연동 ▶연장정보관리시스템(HPMS) 정보 연계 등 현장 운영에 대한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다. 본사와 현장이 함께 공정-품질-안전을 통합적으로 관리 할 수 있어 그 의미가 크다.



**TADAS (TBM Advanced Driving Assistance System)**  
TBM 통합운전 관리시스템이다. 굴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아 들어 지반 강도를 예측하고, 장비에 부하를 주지 않는 선에서 최적의 굴진 속도를 제안한다. TBM 장비 운전실에 설치되며, 원격 접속을 통해 현장사무소와 본사 기술진 등이 장소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리스크 관리 모듈을 통해 공기 단축과 원가 절감이 가능하며, TBM 적용 현장이라면 장비 타입, 지반 상태 등과 관계없이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다.



**TVWS (TV White Space) 기반 네트워크**  
통신사 중계기 설치가 어려운 터널 현장에 인터넷이 가능하도록 하는 통신 방식이다. TV 주파수 유휴 대역을 활용한 장거리 무선 통신 망을 설치하고 이동이 편리하고, 광케이블 대비 비용이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터널 어느 구간에서든 무선 통신을 이용할 수 있어 안전관리에 용이하고, 스마트글래스 등 IoT 장비를 활용한 원격 현장관리도 가능해진다. 우리 회사는 벨네스(임사-벨네) 북극점 3공구 현장 터널 전 구간에 국내 최초로 무선 통신 환경을 구축한 바 있으며, 전 터널 현장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UGV (Unmanned Ground Vehicle), 스팟 (Spot)**  
현장을 주행하면서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중앙관리시스템에 전송하는 무인 순찰로봇이다. 로봇의 기능은 부착된 센서에 따라 달라지는데 실시간 모니터링, 디지털 매핑, 미세면적 농도 측정, 안전 패트롤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로봇은 밀폐 공간 같이 사람이 드나들기 어려운 곳을 순찰하고, 위기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스마트한 안전-품질관리가 가능해 지는 것. 기술시연회에서는 레이저 스캐닝 장비를 장착해 자동으로 3D 형상을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레고랜드 테마파크 현장

# 국내 최초 글로벌 테마파크 레고 세상으로, Let's go!

**Having FUN!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신나는 레고 세상**  
 청명한 하늘 아래 곧게 뻗은 춘천대교. 마치 일상에서 벗어나 다른 세상으로 통하는 마법의 다리를 건너듯, 북한강을 가로질러 달리다 보면 레고랜드의 알록달록한 색깔이 시선을 이끈다. 형형색색의 대형 레고브릭을 쌓아 만든 듯한 게이트 앞에서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의 발걸음에 설렘이 가득! 정식 개장 전 프리 오픈 기간에 레고랜드를 찾은 방문객들은 톨러스케이트를 즐기는 기린, 웬지 모르게 친근한 후크선장 등 크고 작은 레고 조형물 앞에서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선 글로벌 테마파크인 레고랜드 코리아의 면적은 무려 28만㎡, 축구장 39개 크기로 아시아에서는 최대, 전 세계에서는 레고랜드 뉴욕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한다. 브릭스트릿, 브릭토포야, 레고시티, 미니랜드 등 총 7개의 클러스터로 구성된 이 테마파크는 56개의 건물, 19개의 놀이시설이 가득 채웠다. 현재 공사 중인 지상 4층, 154개 객실 규모의 호텔은 올 7월부터 방문객의 편안한 휴식을 책임질 예정이다.  
 수많은 레고 조형물과 놀이기구, 각각의 콘셉트가 녹아있는 건물이 한데 어우러진 현장에서 우리 회사는 레고 모델과 사인리지, 모형물 제작을 제외한 모든 구조물과 인프라 시공을 담당했다. 건물과 놀이기구 등 시설들이 제자리에 정확히 위치하도록 측량하는 일부 터 건설, 놀이기구 설치, 전선 및 배관 설비 등 레고랜드 조성에 필요한 전체 공정을 이끌어 왔다.

레고 위를 달리는 기차, 우뚝 선 전망대, 빙글빙글 돌아가는 놀이기구까지, 쾅쾅 빛나는 저마다의 색깔이 테마파크에 생동감을 불어넣는다. 특히 자체 대부분에 레고 고유의 컬러를 적용한 덕분에 다른 테마파크와 차별화된 레고랜드만의 아이덴티티가 여실히 드러난다.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건 브릭을 조립해 만든 듯한 호텔 외관이다. 레고랜드에 입성하기 위한 길목에 있기도 하지만, 압도적인 컬러감에 마치 우리가 '레고 세상의 미니 피규어(Mini figure)'가 된 듯한 느낌을 강하게 주기 때문이다. 규정된 색을 건축물에 그대로 입히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현장선명한 컬러 구현을 위해 외장 마감에 다색강판 기술을 적용했다. 이는 스틸강판에 직접 컬러 그래픽을 입히는 방법으로, 알루미늄 패넬로 단색 시공하거나 시트지로 컬러를 입히는 것과 달리 다양한 색을 도려내거나 나타낼 수 있다. 색의 경계까지 명확하게 표현한 것이 브릭을 하나하나 쌓아올린 듯한 아트워크 제작을 가능하게 한 비결이다.



**현장탐방** 북한강이 감싸 흐르는 강원도 춘천의 섬, 중도. 잔물결이 반짝이는 섬 위에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손끝에서 피어나던 레고 왕국이 눈앞에 펼쳐진 것. 디즈니랜드, 유니버설스튜디오와 함께 세계 3대 테마파크로 꼽히는 레고랜드가 드디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문을 연다. 5월 5일 어린이날, 공식 개장을 앞두고 막바지 점검에 숨겨진 낱알을 보내고 있는 레고랜드 테마파크 현장을 찾았다. 글=이진우 / 현장리포터= 서민경 매니저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레고랜드의 매력을 이끌어내다**  
 브릭스트릿을 지나 본격적으로 레고랜드 탐험을 시작한다! 경찰서, 공항 등 레고 도시를 둘러보고 싶은 가족은 레고 시티로, 롤러코스터의 스릴을 즐기고 싶은 연인은 레고캐슬로 달려가면 된다. 가장 중앙에 위치한 미니랜드를 둘러싸고 레고 시리즈의 테마를 모티브로 조성한 각각의 클러스터가 배치됐다. 실제 브릭으로 우리나라 랜드마크의 미니어처를 만들어둔 미니랜드에는 기대 이상의 '와우 포인트'가 넘친다. 서울조에 쓰인 브릭만 83만2000여 개, 물건을 가득 실은 트럭이 도로 위를 달리고, 미니 피규어가 실악산 흔들바위를 열심히 밀어내는 버튼 장치까지. 손아부는 브릭 규모에 한 번, 정교함에 두 번 놀란다. 이외에도 시원한 물총싸움을 즐길 수 있는 '해적의 바다', 악의 무리와 맞서 싸워야 할 것만 같은 동양풍의 '레고닌자고원드' 등 유명 시리즈의 콘셉트가 충실히 반영된 색선들은 레고덕후들의 심장을 두드러기에 충분했다.  
 레고캐슬 클러스터에서 환호성이 들린다. 중세시대 성에서 빠져나온 용이 하늘 위로 솟살같이 지나간다. 레고랜드에서 가장 스릴 넘친다는 어트랙션, '드래곤 코스터'가 운행 중이다. 기대감을 전폭 안고 성 안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눈길이 잠시 성벽에 머문다. "와, 진짜 갇야!" 콘크리트 벽에 철망을 씌워 시멘트를 붓고, 시멘트가 다 굳기 전에 굽어내는 과정을 반복해 구현해낸 돌벽, 레고 시리즈 구매에 수없이 지갑을 열었던 미니아들도 이 데테일한 묘사에 엄지손가락을 치켜

들었다. 레고랜드의 56개 건물을 포함한 대부분의 구성 요소는 형태도, 소재도, 적용된 공법도 모두 다르다. 벽돌 표현부터 아트페인팅, 거리의 시설물까지 비일상적인 디테일을 찾는 것은 놀이기구 탑승에 비견가는 또 하나의 재미. 이 세심한 연출은 현장이 발주처와 함께 목업(Mock up·실물 크기를 축소해 만든 모형)을 통한 논의를 수차례 거듭한 끝에 일궈낸 결과다.  
 현장은 발주처, 해외 벤더사, 그 외 유관업체와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현장 운영의 핵심으로 꼽았다. 공사 범위가 넓은 데다 설계변경도 잦아 시설이나 장비, 공정에 간섭이 발생할 경우 구역 및 공정별 일정을 유기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큰일이었다고. 협업 대상이 많은 탓에 한 가지 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했지만 품질과 안전에 대한 원칙을 고수한 끝에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방문객 모두가 행복한 시간을 만끽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즐거운 레고랜드 조성을 위해 달려온 32개월, 드디어 일주일 후면 꿈의 테마파크가 활짝 열린다. '가벼운 마음으로 입장했다가 무거운 다리를 이끌고 되



장하는' 레고랜드의 매력에 푹 빠지고 싶다면 '넉넉한 시간' '든든한 체력' '설레는 마음' 세 가지를 미리 준비하는 건 어떨까.



1 호텔 외관과 잘 어우러진 레고랜드 입구, 컬러풀한 분위기에 생동감이 넘친다. 2 베스트 시리즈로 꼽히는 니자고 콘셉트의 클러스터, 매끄러운 표면 연출을 위해 스테리코 워싱 마감했다. 3 수처리시설 및 실바 시공으로 레고랜드 내 다양한 수경시설을 연출했다. 4 미니랜드를 중심으로 운행하는 기차, 레고랜드 익스프레스가 지나면 길목에 차단기 설치해 제한·제작해 실제 기차길의 분위기를 연출함과 동시에 방문객의 안전도 확보했다. 5 채 공간은 시멘트를 직접 굽어내는 기법으로 중세시대 성의 돌벽 느낌을 구현했다. 이처럼 시리즈 주제에 맞는 이미지를 반영하기 위해 수많은 목업 제작이 수반했다. 6 테마파크 이미지에 부합하는 육구 제자형 차량. 7 북한강과 아름다운 어우러진 레고랜드 코리아 전경.



## 레고랜드 200% 즐기길

**인사할 땐 레고손이 국룰**  
 레고랜드에서는 손을 C자로 만들어 흔드는 일명 '레고손' 인사를 통한다. 누구나 레고손 인사를 건넌다면 당황하지 말고 함께 레고손을 흔들어 주자. 레고손 모양 장갑을 판매하기도 하니 관심 있는 사람은 곳곳으로 고고!

**단판단판 시그처 간식 남남**  
 전 세계 레고랜드에서만 맛볼 수 있는 시그처 메뉴! 시나는 기루와 설렁을 등백 뿌린 사과 튀김 위에 달콤한 크림이 가득 올라간 이 간식은 니자고 월드의 '카이스 애플 프라이즈'에서 판매한다.

**미니랜드에 현대건설의 역작이!**  
 레고 미니어처로 만든 우리나라 곳곳의 랜드마크 중 현대건설이 지은 역작을 찾아보자. N서울타워, 국회의사당, 청와대 등 레고 브릭으로 재탄생한 디테일함에 또한 한 번 놀랄지도!

**'레고 팩토리 어드벤처'는 Coming Soon**  
 레고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볼 수 있는 어트랙션, '레고 팩토리 어드벤처'가 아시아 최초로 레고랜드 코리아에 론칭한다. 6월 오픈 예정이니 레고가 된 기분을 느끼고 싶다면 일정을 참고하자.

**'어용!' 포효하는 레고 사자를 찾아보세요**  
 곳곳에 배치된 레고 조형물을 구경하느라 신나는 걸음이 더더진다. 특히 근처에 다가가면 소리내는 조형물에 깜짝 놀라기 일쑤. 포효하는 레고 사자 옆에 아기 사자의 울음소리는 꼭 들어보자. 정말 귀엽다.

**시원한 물싸움 즐길 사람은 우비와 양말 준비하기**  
 물총과 물대포를 시원하게 발사할 수 있는 스물래시 배틀, 웨이브 레이저 어트랙션을 즐기다 보면 금세 흠뻑 젖어버린다. 옷 짓는 게 싫어 포기하기엔 베스트로 손꼽히는 어트랙션이니 우비와 여분의 양말을 준비하자.

**레고랜드 앱 다운로드 필수**  
 넓디 넓은 레고랜드를 짜임새 있게 즐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자. 각종 시설의 위치는 물론 현재 위치에서 어트랙션까지 걸어서 걸리는 시간, 대기 시간을 파악할 수 있다.

**글로벌 테마파크 레고랜드, 또 어떤 나라에 있을까?**  
 춘천의 레고랜드는 세계 열 번째 레고랜드다. 최초의 레고랜드는 1968년 레고 본사가 있는 덴마크 빌보에 개장했으며 독일 권트호르스트, 영국 윈저, 미국 캘리포니아·플로리다·뉴욕, 일본 긴조후토, 말레이시아 누사자야, 두바이 제벨 알리 사우스에 위치한다. 이 중 레고랜드 코리아는 세계 유일 성 위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레고랜드로 꼽힌다.





## 아프리카 오지 소년에서 프리츠크상 수상자로 흙·나무·빛을 시적으로 표현한 건축가, 케레

**건축칼럼** 프리츠크상을 주관하는 하얏트재단은 3월 15일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출신인 건축가 프란시스 케레(이하 '케레')를 올해 프리츠크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아프리카 출신 건축가가 이 상을 받는 것은 43년 역사상 처음이다. 심사위원단은 "케레는 자신이 태어난 지역사회를 살리기 위해 헌신했다"며 "그는 주변 환경과 주민이 하나가 되는 건물을 만들었다. 그의 건축은 허세 부리지 않으면서도 우아한 조형미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글=이은주 <중앙일보> 기자 / 사진=pritzkerprize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부르키나파소는 세계에서 가장 교육 수준이 낮고 가난한 나라 중 하나다. 1965년 이곳에서 태어난 케레는 통풍도 안 되고 햇빛이 거의 들지 않는 교실에서 공부하며 "언젠가 더 나은 건물을 짓고 싶다"고 다짐했다. 건축학을 전공하며 고향 사람들에게 보답하고 싶었던 그는 대학 시절 자신이 배운 건축 지식과 지역의 흙과 나무를 재료로 총동원해 학교 짓기를 추진했다.

주민들도 힘을 모았다. 남자들은 당나귀 수레로 건설 현장에 돌을 운반했고, 흙을 파 체에 치고 시멘트와 물을 섞어 진흙 벽돌을 만들었다. 여자들은 건설에 필요한 물을 담은 항아리를 머리에 이고 7km가 넘는 길을 운반했다.

고향에서 작업하며 그가 해결할 것은 크게 두 가지였다. 짙은 더위, 열악한 조명 문제와 더불어 아프리카의 전통을 살리면서도 현대 기술을 총동원하는 것이었다. 그는 우선 시멘트 강화벽돌과 트러스로 높게 들어 올린 지붕으로 짙은 더위와 열악한 조명 문제를 해결했다. 건물 측면으로는 창문을 내 시원한 공기가 들어오고 천장 구멍으로 열기가 나가게 했다. 뉴욕타임스는 "이 프로젝트로 학생 수는 120명

에서 700명으로 늘었고, 프로젝트는 이후 교사 주택 설계(2004), 증축(2008), 도서관 설계(2019)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케레는 2004년 이슬람 야가 칸 건축상을 받았으며, 국제적으로 주목받았다. 이후 그는 말리, 토고, 케냐, 모잠비크, 수단 등지에 건물을 지으며 에어컨 없이도 쾌적한 '자연 냉방'을 활용해 왔다. 케냐 투르카나의 IT 복합시설(2021)도 수동 냉각을 위해 지역에서 채석한 돌과 적층 타워를 사용해 쾌적함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케레는 2005년 베를린에서 설계사무소 '케레 건축'을 설립했다. 현재 뮌헨에 자리 잡은 사무소의 직원은 21명이다. 미국 몬태나주 티페트 라이즈 아트센터(2019), 부르키나 공과대학(2020), 말리 국립공원(2010)도 설계했다. 2017년 엔 런던 서펜타인 파빌리온 설계를 맡았다. 자하 하디드, 프랭크 게리, 렘 쿨하스, 페터 Zumthor 등 쟁쟁한 건축가들이 이미 거처간 프로젝트다.

케레가 활용하는 재료도 주목할 만하다. 그는 목재, 벽돌, 점토 등 그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재료를 모두 사용한다. 심사위원단이 "빛을 시적으로 표현한다"고 평했을 정도로 프

로젝트 전반에서 빛을 중시하는 것도 두드러진다. 심사위원단은 "햇빛이 건물, 뜰, 중간 공간으로 스며들어 혹독한 한낮의 조건을 극복하며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만들어낸다"고 썼다. 그가 설계한 부르키나파소 라온고의 사회복지센터(2014, Laongo, Burkina Faso) 벽은 다양한 높이의 프레임 창이 있어서 서 있는 의사부터 앉아 있는 방문객, 누워 있는 환자까지 모두가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다.

케레는 뉴욕타임스·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수상 소감을 밝히며 "우리는 건축을 통해 건물이 아니라 영감을 얻는다"며 "모든 사람은 좋은 품질, 화려함, 안락함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또 "아프리카 젊은이들이 나를 보고 이것이 그들에게도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케레의 수상 소식을 들은 김광현 서울대 건축학과 명예교수는 "공동체에 보답하기 위해 나선 케레는 학교 만들기 작업을 넘어서 공동체의 미래를 지은 것이다. 공동체의 미래를 짓고 기쁨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건축의 본질"이라고 덧붙였다.



1 케레가 설계한 고향 부르키나파소의 부르키나 공대. 2 미국 캘리포니아 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트스(Coachella Valley Music and Arts) 페스티벌을 위해 설계한 축제 텐트.

### Hyundai E&C & Pritzker Prize 프리츠크상 수상자들과 함께한 현대건설의 건축물

**안도 다다오**  
제주 본태박물관, 마임 비전 빌리지  
2012년~2014년 준공



안도 다다오는 현대건설과 특히 인연이 깊다. 그가 제주 서귀포 안덕면 소재의 본태박물관,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의 마임 비전 빌리지의 밑그림(설계)을 그렸다면, 우리 회사는 시공을 맡아 건축의 미를 완성했다. 지상 2층, 3개 동 규모의 본태박물관은 그의 작품답게 노출 콘크리트에 물과 빛을 끌어들이며 조화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마음의 교회를 비탄해 갤러리, 라이브러리 구성된 마임 비전 빌리지 역시 빛과 콘크리트가 만나 또 하나의 예술을 탄생시켰다. 천혜의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두 작품은 건축사에 큰 획을 그기에 충분했다.

**노먼 포스터**  
싱가포르 사우스비치 2018년 준공



거대한 파도를 형상화한 싱가포르 사우스비치는 노먼 포스터가 설립한 포스터파트너스가 설계했다. 전체적인 콘셉트는 'Huge Wave'로, 멀리서 보면 황금 물결이 일렁이는 것처럼 보이는 캐노피가 인상적이다. 우리 회사는 건축물 곳곳에 친환경 요소를 가미해 시공했다. 280m에 달하는 이 캐노피는 빛을, 직사광선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공기가 순환할 수 있게 돕는 '친환경 필터' 역할을 한다. 건물과 캐노피를 따라 흐르는 빛은 지하 탱크에 모아 재활용하거나 일부 캐노피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할 수도 있다.

**장 누벨**  
카타르 국립박물관 2019년 준공



'금세기 최고의 걸작'으로 불리는 카타르 국립박물관은 직선, 직각이 거의 없는 기하학적인 형태로 건축계 스타 장 누벨이 '사막의 장미'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했다. 이 작품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곡선으로 이뤄진 건물 외관이다. 316개에 달하는 원형판(Disk)이 뒤섞이고 맞물리며 하는 원형판이 뒤섞이고 맞물리며 만들어진 독특한 형태다. 우리 회사는 철골로 사막 장미 모양의 구조체를 세운 뒤 7만 6000여 장의 섬유 보강 콘크리트 패널을 원형판에 끼워 맞춰다. 또 정밀 시공을 위해 세계 최초로 건축 전 과정에 3D BIM을 적용하며 예술에 기술을 더했다.

**리처드 마이어**  
강릉 씨마크호텔 2015년 준공



리처드 마이어는 단순하고 간결한 조형미를 추구해 '백색의 건축가'로 불린다. 우리 회사는 그와 함께 천혜의 자연 조건과 절제된 조형미의 건축물이 조화로운 씨마크호텔을 탄생시켰다. 원형지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호텔동과 컨벤션센터를 별개의 매스(Mass)로 분리했으며, 주변의 소나무숲, 해변까지 이어진 오솔길 등도 그대로 보존했다. 투명한 백색 패널, 유리 커튼월과 건물 외벽으로 돌출된 플로팅 발코니, 인피니티풀 등 이곳의 대표적인 디자인은 건축물 전면에 펼쳐진 동해와 뒷면의 경포호라는 수려한 자연 조건을 호텔 내부로 불러들이기 위한 시도였다.

**라파엘 모네오**  
에테르노 청담 2023년 준공 예정



스페인을 대표하는 건축 거장 라파엘 모네오가 우리 회사가 짓는 주택의 외관 및 공용부 설계를 맡았다. 기존 아파트가 네모난 창문으로 획일적인 모습이라면, 에테르노 청담은 건물 입면이 나누어 보이지 않으면서도 조화로운 것이 특징이다. 지하 4층~지상 20층, 29가구로 구성돼 있으며, 1층은 호텔식 로비로 꾸미고 2~18층은 단층 22가구 복층 6가구, 19~20층은 수퍼 펜트하우스로 건설된다. 2020년 2월 한국을 찾은 그는 "주택에 건축적 의미를 투영하고 싶다"면서 "에테르노 청담이 서울이란 도시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모두 고려해 설계할 것"이라며 디자인 콘셉트를 밝혔다.

# 봄꽃과 함께 찍는 인생샷, 어렵지 않아요!

**문화칼럼** 1년 중 가장 찬란한 계절인 봄이다. 아무리 계절 변화에 둔감한 사람이라도 살랑이는 봄꽃 앞에선 자연스럽게 카메라를 꺼내 들게 될 것이다. 이왕 찍는 꽃 사진, 봄 내음 가득한 '인생샷'도 남길 수 있다면 금상첨화!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친구도 좋고, '쌈' 타는 이성이라면 더 좋다. 좋아하는 사람과 봄나들이를 즐겨보자. '인생샷을 찍어주겠다'는 제안이라면 금방 따라나설지 모른다. 복잡한 이론은 뒤로하고 여섯 가지만 기억하자.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봄 인생샷 찍기 팁! 글/사진=김경우 사진작가



**📷 임계초점면을 활용하자**  
**Step 1** 갑자기 난해한 용어가 나와서 당황한 분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알고 보면 쉬운 임계초점면(Plane of Critical Focus)을 활용하면 깔끔한 인생샷을 찍을 수 있다. 초점이 '점'에 맞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면'에 맞는다. 인물의 눈에 초점을 맞췄다면 점을 찍듯 눈에만 맞는 게 아니라 렌즈로부터 동일한 거리의 면에도 함께 맞는 것이다. 이렇게 '초점이 맞는 면'을 임계초점면이라고 한다. 꽃과 인물을 동일선상에 배치하면 조리개를 아무리 개방해도 인물과 꽃 모두에 초점이 썩하게 맞게 된다. 그러면 뒤의 배경은 완전히 아웃 오브 포커스가 되면서 인물과 꽃이 부각되는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이때 초점거리가 85mm 이상인 망원렌즈를 쓰면 더 좋다. 스마트폰처럼 세심한 포커스 조절이 힘든 카메라라도 인물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뒤의 배경은 흐려지게 된다.



**📷 아웃 포커싱으로 풍부한 연출**  
**Step 2** 임계초점면 개념을 역이용하면 더 특별하고 독창적 인생샷을 남길 수 있다. 조리개를 개방했을 때 인물과 인물 옆의 꽃에만 초점이 맞는다는 점을 고려해 인물 앞쪽의 대상도 흐리게 만들면 인물이 더욱 돋보이게 표현된다. 인물보다 가까이 위치한 꽃에 카메라 렌즈를 거의 들이대다시피 붙여 보자. 꽃의 포커스가 나가면서 색만 남는다. 꽃의 틈새에 인물을 배치한다는 생각으로 화면을 구성하면 봄 느낌이 물씬 나는 인생샷을 찍을 수 있다.



**📷 구도는 사진 보는 사람의 시선 방향에 맞게**  
**Step 3** 인물을 화면 정중앙에 두고 기념사진을 찍는 사람이 많다. 집중되는 효과는 있겠지만 시선이 짧게 머무는 심심한 구도다. 얼굴이 오른쪽 상단에 오도록 인물을 배치해 보자. 책을 읽을 때, 길을 건널 때, 글을 쓸 때 시선이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을 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미지를 보는 것 또한 그 방향에 익숙해져 있다. 이런 흐름을 고려해 오른쪽 상단에 인물을 배치하면, 왼쪽 3분의 2 정도의 공간은 여백으로서 시선을 오른쪽으로 향하게 하는 '루킹 룸(Looking Room)'의 역할을 한다. 주피사체인 인물을 보다 더 오래 보게 하는 효과가 있으니 처음에는 꼭 오른쪽에 인물이 위치하도록 구도를 잡아보자.



**📷 가벼운 소품으로 자연스럽게**  
**Step 4** 꽃이 아무리 예쁘다 한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가 진리다. 여기서 더 사람을 돋보이게 하려면 소품을 활용해 보자. 거창한 소품을 준비하기보다는 챙이 있는 페도라 같이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아이템이면 충분하다. 표지 색깔이 예쁜 책이나 집 안에 굴러다니는 헤드셋, 오래된 필름 카메라 같은 것도 훌륭한 소품이 된다. 프로 모델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즈나 표정 잡기를 어색해하는데, 소품을 들려주면 포즈와 표정이 자연스럽게워진다.



**📷 노출은 카메라가 지시하는 것보다 좀 더 밝게**  
**Step 5** 아무리 구도가 좋아도 칙칙하고 어둡다면 봄 인생샷 느낌이 살아나지 않는다. 화사한 느낌으로 촬영하고 싶다면 카메라가 지시하는 적정 노출보다 조금 더 밝게 찍어보자. 대부분 봄꽃은 인물의 얼굴보다 밝은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상대적으로 인물의 얼굴이 어두워 보인다. 노출 조정 기능이 있는 미러리스나 DSLR이라면 조리개우선모드(A)에서 +1 정도 노출을 올려주면 된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한다면 프로모드의 노출계를 통해 조절할 수 있다.



## 〈스물다섯 스물하나〉 ‘희도’였던 모든 순간 특별했다

**피플인사이드** 많은 시청자에게 주말 저녁 힐링 시간을 선사한 드라마 〈스물다섯 스물하나〉는 1998년 IMF 시대에 꿈을 빼앗긴 청년들의 방황과 성장을 그렸다. 김태리는 명랑 만화에서 갓 튀어나온 듯한 18세 고등학생 배역을 준비하면서 피부 관리 등의 부담감이 있었다며 웃었다.

글=황소영 <일간스포츠> 기자 / 사진=헬로 아카이브

배우 김태리가 tvN 주말극 〈스물다섯 스물하나〉 속 펜싱 국가대표 ‘나희도’ 캐릭터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 인터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나희도표 텐션을 놓치지 않았다. 우렁찬 목소리 속 유쾌한 웃음이 흘러나왔고 특유의 장난기까지 돋보였다.

**Q 자체 최고 시청률 11.5%(닐슨코리아 전국 케이블 유료가구 기준)로 끝났다.**

너무 감사하다. 진짜 상상도 못 했다.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작품을 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을 줄은 몰랐다. 상상을 했다더라면 연기를 더 재밌게 했을 텐데, 희도가 어떤 일을 해도 다 사랑스럽다고 해주는 든든한 아군이 아니냐. 그걸 미리 알았다면 더 재밌게 좋은 장면들을 구성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든다.

**Q 어떤 부분에 집중해 작품을 준비했나.**

희도 자체에 집중했다. 초반에 텐션이 너무 높은 게 아닌지 이상하게 보이지는 않을지 걱정이 됐었는데, 그냥 내가 잡은 방향대로 갔다. 그게 맞다고 생각해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것 같다.

**Q 결말에 대한 만족감은.**

만족, 불만족은 잘 모르겠다. 한 작품이 완성되고 그 작품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은 말할 수 있겠지만 결말에 대한 건 내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시청자로서의 입장은 너무 슬프고 안타깝다.

**Q 희도는 어떤 인물이었나.**

하는 일이 재밌고, 진짜 행복을 알고 그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낼 줄 아는 아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수다가 신이 좋았다. 본인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업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 평소 ‘7전8기’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강하고 건강한 아이라고 생각한다.

**Q 희도로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모든 장면이 너무 특별해서 기억에 남는다. 특별히 하나를 꼽자면 국가대표로 금메달을 땀 때다. 운동선수로서 슬럼프를 겪고 끝내 금메달을 획득한 것이 아닌가. 다만 내가 그때의 감정을 잘 표현했나, 충분했을까 싶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대목인데 그래서 더 희도한테는 특별한 장면인 것 같다.

**Q 캐릭터와의 싱크로율은.**

김태리가 표현한 나희도가 나온 거다. 이전에 연기했던 캐릭터에도 내 모습이 많이 녹여져 있다. 새로운 걸 창조하는 것보다는 나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그리고 이미 글에 쓰여 있지 않나. 글 속에 표현된 희도가 나랑 이미 닮은 구석이 많더라. 굳이 이 사건 저 사건 생각하지 않더라도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다. 희도는 일단 무엇을 하든 진심으로 한다. 그런 면이 예뻐 보이는 것 같다. 나 역시 거짓말, 가식, 가짜를 정말 싫어한다. 뭔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척’ ‘체’ 이런 게 너무 싫다. 희도와 닮아 있는 성향인 것 같다. 펜싱도 진짜 힘들었는데 재밌어서 했다. 정말 잘하고 싶었다. 그런 진심이 희도와 닮아 있었다.

**Q 30대라는 사실을 믿기 어려울 만큼 10대 여고생 역할이 찰떡이었다.**

말투나 제스처는 진짜 의식하지 않고 했다. 평소 말투들이 많이 나온 것 같다. 딱히 크게 뭔가를 해야지 그



런 건 없었다. 대본을 보고 있는 그대로를 한 것 같다. 피부는 좀 신경을 썼다.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 피부과는 가려고 노력했다. ‘얼어붙 살의 피부를 만들자’ ‘최대한 가까이 가보자’라는 생각으로 노력했다.

**Q 이 작품을 꼭 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희도라는 캐릭터 자체가 매력적이지 않나. 배우로서 그 아이를 연기할 수 있어 영광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멋있고 좋은 캐릭터라고 생각한다.

**Q 희도에게 배울 만하다고 생각한 점이 있다면.**

자격지심이 없어 있는 그대로를 바라볼 줄 아는 아이다. 벌어진 사건 그대로를 생각해 인정할 건 바로 인정한다. 실제 나는 ‘내가 잘못해서 그래’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등 내 잘못을 엄청 찾는 편이다. 나의 잘못을 찾아서 땅굴을 파는 스타일이다.

**Q 펜싱 선수로 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

촬영 시작 5~6개월 전부터 펜싱을 배우기 시작했다. 레슨은 항상 오전 10시 반이었다. 펜싱장에 다른 학생들이 많이 없는 시간이었다. 하루 한 시간 반 동안 매일 레슨을 받았던 것 같다.

**Q 기억에 남는 대사를 꼽는다면.**

2부 엔딩을 너무 사랑한다. 이진이와 굴다리 앞에서 ‘그럼 이렇게 하자. 우리 둘만 있을 때 몰래 행복하자. 행복 없이 사는 건 말이 안 돼’라고 말하는 대사와 장면, 내레이션까지 최고였다고 생각한다.

**Q 이번 작품에서 스스로 칭찬해 주고 싶은 부분은.**

버텨낸 것에 대해 칭찬해 주고 싶다. 버티는 것만큼이나 힘든 게 없다. 그걸 잘 해냈다고 생각한다. 배우 김태리, 인간 김태리로서 이번 작품을 한 건 잘한 것 같다. 일단 가족과 지인들이 너무 좋아해 준다. 영화는 촬영 후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지 않나. 주변에서 드라마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드라마를 하게 된 것인데 그분들의 행복감을 채워주지 않았나 싶어 더 좋았다.

**Q 배우로서 평소 어디서 영감을 얻나.**

영감을 너무 받고 싶은데 잘 못 받는 편이다. 직업 자체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창조인은 아니다. 텍스트를 받아서 분석하고 거기서 덧붙이는 종류의 예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가끔 영감을 받을 땐 메모장에 적어두곤 한다.

**Q 김태리 하면 단단하다는 느낌이 든다. 내면을 채우는 방법이 있나.**

단단한 사람인데 그런 만큼 무너졌을 때 최악을 치는 사람이다. ‘과연 내가 단단한가?’ 이런 질문을 종종 스스로 하는데 무너지면 빛이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무너진다. 단단한 면이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동시에 여러 작품을 못하고, 한 작품을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사람이 되는 게 어렵다. 그래서 휴식 시간이 꼭 필요하다. 하루라도 생각을 정리하고 문제점을 발견하는 등 내일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

**Q 배우 김태리, 인간 김태리로서의 고민은.**

배우로서의 고민과 사람 김태리로서의 고민이 연결되는 것 같다. 연기를 하는 게 큰 스트레스다. 근데 연기를 꿈으로 삼고 평생 직업으로 삼겠다고 했던 동기는 ‘재미’였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늘 재밌지 않고 어려움도 더해진다. 내가 작품을 몇 개 더한다고 해서 편해질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을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할까, 하고 싶었던 연기의 재미를 계속 찾기 위해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 걸까 등 그런 것들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할 것 같다.





# 현대건설 주택사업 덕후평가

창립 75주년을 맞이한 현대건설!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독보적인 프로젝트들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우리 회사 주택사업을 퀴즈로 알아보자. 글·정리=강은비

성명

사원번호

## OX 퀴즈

- 힐스테이트는 '힐(Hill)+스테이트(State)'의 합성어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창조하는 '라이프스타일 리더'를 의미한다.
- 우리 회사는 창사 이래 도시정비사업 부문에서 사상 최대 실적을 세우며 도시 정비 업계 최초로 3년 연속 신기록 경신에 도전하고 있다.
- 고객이 원하는 주거 트렌드를 담은 특화 상품 'H시리즈'는 현재까지 38개 아이템을 개발해 선보였다.
- 우리 회사 주택 브랜드 심벌은 H 엠블럼을 계승해서 디자인한 것이다.
- 우리 회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가와 협업해 아이들의 창의력과 감수성을 키워줄 수 있는 놀이터를 탄생시켰다. 그중 디에이지 아너힐즈의 '우리 아빠 놀이터'는 동화작가 '앤서니 브라운'과 협업한 프로젝트다.

## 객관식

- 국내 최초의 단지형 아파트이자 우리 회사가 지은 첫 번째 아파트는?  
① 힐탑외인아파트 ② 성산아파트 ③ 마포아파트 ④ 여의도시범아파트
- '힐스테이트' 브랜드는 2006년에 론칭됐다. 브랜드 출시 후 첫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힐스테이트는?  
① 김포고촌 힐스테이트 ② 서울숲 힐스테이트 ③ 북한산 힐스테이트 ④ 삼성동 힐스테이트
- 아이들의 꿈을 키워줄 수 있는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2차' 놀이터에는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 놀이터를 가득 채웠다. 특히 미스트 분사와 물놀이 공간으로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인 이 놀이터의 캐릭터는?  
① 바다탐험대 옥토퍼 ② 우주탐험대 옥토퍼 ③ 강물탐험대 옥토퍼 ④ 바다탐험대 옥토퍼
- 다음 중 우리 회사가 과거에서부터 선보인 주택 브랜드 BI와 이름이 잘못 연결된 것은?  

 현대홈타운	 힐스테이트	 히페리온	 디에이지
① 현대홈타운	② 힐스테이트	③ 히페리온	④ 디에이지
- 우리 회사에서 개발한 H시리즈 중 하나로 미세먼지가 많거나 비가 오는 날에도 아이들이 걱정 없이 뛰어놀 수 있는 곳이다. 산소 발생기, 피톤치드 분사기 등 공기 청정 시설을 갖춘 실내 놀이 공간은?  
① H 클린숲 ② H 오토숲 ③ H 아이숲 ④ H 모여숲

## 주관식 ※QR코드 퀴즈!

- 힐스테이트가 새로운 디자인 'Gen Z Style'을 개발했다. 힐스테이트 문주, 지하주차장, 필로티 디자인 등에 시범 적용하고 있는 Gen Z Style은 색채 미술사로 불리는 컬러 거장과 협업한 프로젝트다. 세계적 컬러 거장의 이름은?  
(초성힌트, 모스모 코오츠)
-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레드닷 디자인어워드'에서 본상을 수상한 '클라우드 워크 파빌리온'은 어디에 설치된 조경 시설물인가?  
(초성힌트, 디오츠 코코르스)

주관식 정답은 다음 호에 알려드립니다!

현대건설은 2022년 4월 27일(수)부터 5월 13일(금)까지 '현대건설 주택사업 덕후평가'를 실시합니다. QR코드를 스캔하여 참여하세요.

지난호 정답  
가로: 이관사우스파가서저리시설  
세로: 우루과이문다델따그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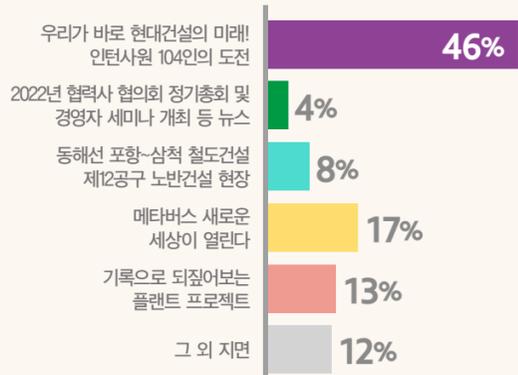


## 사보신문 애독자 코너

### Reader's Letter

현대건설의 대표 소통 채널 <HYUNDAI E&C TODAY>!  
사보신문 독자들의 소중한 의견을 공유합니다.

#### Q 독자의 선택! 412호 원픽 기사는?



#### Q 사보신문에게 전하는 따뜻한 한마디

우리 회사 플랜트 프로젝트가 이뤄낸 기록들이 대단합니다! 읽는 것만으로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플랜트사업 파이팅!

화제인 메타버스에 대해 알게 돼 좋았습니다. 친환경과 비건에도 관심이 많은데 친환경 관련 기사도 부탁드립니다!

인턴사원들 기사가 좋았습니다. 예전 생각도 나고요! 앞으로도 직원 인터뷰 기사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 주관식 퀴즈 참여하기



상단 주관식의 정답과 독자 의견을 보내주세요! 정답과 함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분을 추첨해 디지털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 참여 방법 ① QR코드 스캔  
② 독자 의견 & 퀴즈 답 보내기  
③ 선물 발송을 위한 개인 정보 입력
- 참여 기간 5월 13일(금)까지(※당첨자 개별 연락)  
당첨 경품 디지털 세트

창립 75주년특집

여러분의 H를 소개합니다!

**④주택편** 창립 75주년을 맞아 현대건설의 역작들을 인포그래픽으로 연재한다. 이번 호에는 국내 최초 단지형 아파트를 시작으로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라이프스타일을 제공하며, 그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까지 톡톡히 하고 있는 주택 사업의 모든 것을 소개한다.

글·정리=강은비 / 도움=김상현 매니저

\*준공연도: 현대건설 70년사 기준

현대건설 주택 브랜드 H 엠블럼 계승



현대가 제공하는 탁월한 공간  
힐스테이트 2006년 9월 론칭



단 하나의 완벽함  
디에이지 2015년 4월 론칭

도시정비, 업계 최초 3년 연속 신기록 도전

우리 회사가 2021년 마지막 날, 가로주택사업 및 리모델링 사업으로 5조5000억원의 수주를 달성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재경신하고 5조원 클럽에 가입했다. 올해 역시 두 달 만에 1조원 수주 돌파에 성공하며 업계 최초 3년 연속 신기록 경신에 도전하고 있다.



\*최근 3년 도시정비 수주 현황

현대건설 주택 부문 최초&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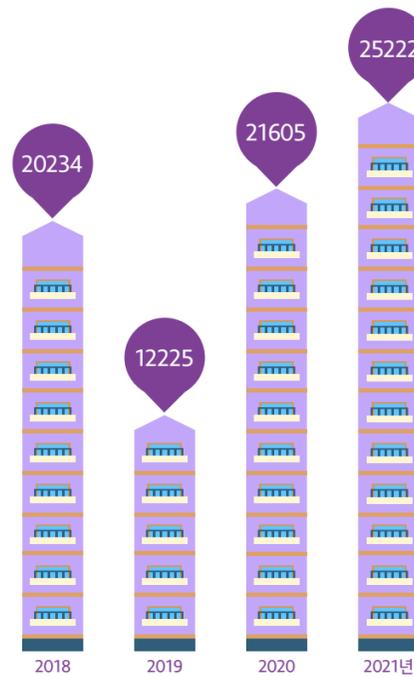
- ★ 업계 최초 층간소음차단 1등급 기술력 확보
- ★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공동주택 부문 최초 건축을 에너지 효율등급 1++ 확보 & 국내 최고 고층 Zero Energy 인증 아파트
- ★ 스마트홈 시스템(HiOs) 업계 최초 개발
- ★ 세계 최초 광플라즈마 공기청정 시스템 H 클린알파 개발



2006년 이후 분양한 힐스테이트 \*당사 시공 기타 브랜드 포함

암구정 '현대아파트' 신화에 이어 우리 회사는 2006년 9월 '힐스테이트' 브랜드를 론칭했다. 명품 아파트의 면모가 드러난 '서울숲 힐스테이트'를 시작으로 우리 회사는 전국에 17만6930세대(디에이지, 오피스텔 등 포함) 이상의 주거 상품을 분양하며 대한민국의 주거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176930 세대 분양



\*최근 4년 세대 분양 수

H시리즈 39개 아이템 개발

고객이 원하는 주거 트렌드를 담아낸 특화 상품



- H 클린알파2.0 세계 최초 공동주택용 환기 장비 및 천장형 공기청정기 시스템
- H 클린현관 외부 오염 환경으로부터 안전한 현관
- H 아이슈 미세먼지 걱정 없이 뛰어놀 수 있는 공기 청정 시설을 갖춘 실내 놀이 공간
- H 클린팜 외부 유해 환경을 차단해 상추 등 엽채류를 재배할 수 있는 스마트팜
- H 바이크 현대자동차 하이브리드 차량 배터리를 장착한 단지 내 공유형 전기자전거
- H 오토존 입주민이 간단한 차량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건식 세차 공간



세계 3대 디자인상 수상

- iF 디자인 어워드 Winner 수상 미세먼지 저감 클린존
- IDEA 디자인 어워드 Finalist 수상 디에이지 자이 개포의 문주(門柱) '더 게이트 탄젠트'
- 레드닷 디자인어워드 분상 수상 디에이지 라클라스 조경 시설물 '클라우드 워크 파빌리온'
-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 2022 Gold Winner, Winner 수상 디에이지 라클라스 조경 시설물 '클라우드 워크 파빌리온', 힐스테이트 클래식시안 특화정원 '라운지 가든'

'아파트의 명가' 현대건설이 지어온 역작

